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풍성'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준수 당부

무주군,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 프로그램·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에서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벤트로, 봄나들이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무주의 자연과 곤충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시실에서는 '넓적사슴벌레'와 '물방개'를 비롯한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애사슴벌레, 검정물방개 등의 애완 곤충, '꽃뽕이', '고소애' 등의 식용 곤충 등 총 12종의 곤충을 만날 수 있으며 '큰술흔나비'와 '호랑나비' 등 살아있는 나비도 관찰할 수 있다.

'곤충표본 만들기'와 '곤충화석 만들기', '모기 기피제 만들기', '자연물(은쟁) 반지 만들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놀이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날 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으로 회당 20명씩 현장 접수를 참여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반딧불이팀 정재훈 팀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곤충의 생태를 체험을 통해 배우



무주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에서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책에서 배웠던 자연의 이야기들을 자연특설시 무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반디랜드 곤충이야기 체험관은 평소에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09:00~18:00)까지 운영되며, 자연물 반지 만들기, 곤충비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하루 4회 진행된다.

인근에는 곤충박물관을 비롯해 소규모 동물농장과 애반딧불이 복원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온 가족이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쌓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5월 3일 무주반딧불이체험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무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송희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태권도시범단의 축하공연도 즐길 수 있다.

소방관·경찰관 등 진로 체험을 비롯해 다트 활쏘기, 주먹밥 만들기 등 20여 개의 무료 체험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예방접종·개인위생 수칙 철저 등 강조

진안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여행을 통한 국내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12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3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3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으며, 이 중 12명은 추가 전파에 따른 감염 사례로 파악됐다.

이에 진안군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출국 전 홍역(MMR)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이력이 없으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장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홍역 외에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과 모기매개감염병(황열,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 등)에 대한 감염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안군은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수칙으로 △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예방접종 완료 및 예방약·예방물품 준비, △여행 중 동물 접촉 및 모기 물림 주의,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신고 등을 꼽으며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5월 1일부터 태권도원 입장료 '무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태권도 문화 확산을 위해 태권도원 무료입장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먼저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한다. 그동안 성인 4천 원, 소인과 청소년은 3천 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왔으나 5월 1일부터 무료입장으로 바꾼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일상 속 문화로서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태권도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은 5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태권도원 종합안내소'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 없는 종이 뽑기'란 놀이를 진행하며 손수건, 손 선풍

기, 우산 등을 선물한다. 종합안내소 앞 광장에서는 '로봇이 만들어 주는 솜사탕'과 '팝콘', '슬러시' 등의 간식 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태권도원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한다. 그동안 성인 4천 원, 소인과 청소년은 3천 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왔으나 5월 1일부터 무료입장으로 바꾼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일상 속 문화로서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태권도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은 5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태권도원 종합안내소'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 없는 종이 뽑기'란 놀이를 진행하며 손수건, 손 선풍

장수군, 봄철 산나물 '두릅' 공동선별 출하 본격 시작

장수군이 봄철을 대표하는 산나물인 두릅을 공동선별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약 8톤의 두릅이 출하됐으며 이 중 4톤은 장수군조합공동사업인의 엄격한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됐다. 특히 특품 두릅의 경우 28일자 경매에서 1kg당 최대 4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

을 기록해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공동선별 출하는 생산 농가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유통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산지에서 철저한 선별 과정을 거친 두릅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도 우수한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갤럭시아SM,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 협력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28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주)갤럭시아SM과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최훈식 회장과 (주)갤럭시아SM 김관용 이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갤럭시아SM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스포츠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이다. 특히 장애인스포츠초본부를 통해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 운동선수 발굴 및 추천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 연계 및 기업 홍보 △장애인 운동선수 전문 트레이닝 및 지도 교육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훈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28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주)갤럭시아SM과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 장애인 전문체육이 한층 활성화되고,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운동선수의 발굴과 추천을 통해 (주)갤

럭시아SM과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선수들이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군에서는 톤볼 선수로 활동 중인 심재선 선수가 취업 연계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주영환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3명과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2명이 참가해 관내 개별주택 9,111호에 대한 2025년 개별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1.2% 상향 조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특히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형용유지 여부, 주택특성 조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심의를 거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학교 4-H에 봄꽃 꽃모 1200여 본 보급

진안군은 28일 청소년들의 농업 이해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봄꽃 모모 보급을 완료했다.

이번 꽃모 보급은 '학교 4-H 꽃모 키우기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4개 학교에 석죽, 패랭이, 백합, 수국 등 주요 화종 4종 1,237본을 분양했다.

학교 4-H 꽃모 키우기 과제활동은 매년 추진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은 학생들이 꽃을 식재하고 가꾸는 경험을 통해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긍정적인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년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교 4-H회 회원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돌보는 활동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4-H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